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의 관계*

진 은 설**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을 거쳐 행복감에 미치는 가장 타당한 모형을 찾아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 30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모형을 찾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에 따른 행복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2개의 모형을 실증적 자료로 각각 검증하여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모형2를 제안하였다. 모형2는 참여동기,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며,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활동의 참여동기는 활동만족도와 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활동만족도는 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적응유연성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활동만족도는 참여동기와 적응유연성 사이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적응유연성은 참여동기와 행복감 사이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

* 이 논문은 진은설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중앙대학교 박사, eschin@empas.com

I. 서 론

최근 들어 건강, 웰빙(well-being), 즐거움, 행복 등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나타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인간욕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과업을 요구받고 있다. 기본적인 발달과업 외에도 학업과 입시환경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좁은 취업의 기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임을 감안할 때 학업과 입시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업과 입시는 경쟁지향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게 된다.

2010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결과(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와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가치관 국제비교 조사결과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이한나, 2011). 특히 학교생활의 질, 학업성적, 입시제도, 학교생활만족도 등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박영신, 2004; 전경숙, 정태연, 2009). 이는 입시위주의 학교 및 사회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미리, 2003; 최원기, 2004; Lee & Larson, 2000).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자칫 문제행동(도벽, 공격성, 우울 등)으로 이어져(심은실, 김영혜, 2011; 정미경, 2012)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학업 등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고 즐거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은 학업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진은설, 임영식, 2011).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활동이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연구한 이미리(2003)는 청소년들이 적극적 여가활동(높은 수준의 신체적·심리적 에너지를 요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이 포함됨)을 할 때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에 치우친 일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윤나와 박옥식(2009), 정준교(2005) 역시 수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활동의 특정 영역인 자원봉사활동(도종수, 2011), 신체활동(현정혁, 홍준혁, 이현영, 2010), 여가활동(이미리, 2003) 등의 특정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활동의 참여여부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등 활동의 참여여부 자체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청소년활동의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의 활동들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예, 문화예술활동, 교류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청소년활동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참여여부만이 아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활동만족도와 같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현장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영역의 활동이 아닌 청소년활동 전반에서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활동참여 자체보다 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와 같은 요인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활동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활동에 대한 만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동기는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며 동시에 지속하게 하는 힘이며(Carruthers & Busser, 2000),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추후활동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진은설, 임영식, 2011).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활동의 참여동기를 주제로 한 연구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도 자원봉사활동(곽미정, 문신용, 2010)이나 스포츠활동(이승희, 2010) 및 여가활동(조아미, 2004)

정도로 제한적이었으며 핵심적인 개념인 동기의 측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활동만족도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단순히 활동만족도를 확인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를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정책이나 방향제시 등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활동의 시작부터 과정과 종료 그리고 추후활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서정화, 배영직, 2004; Brustad, Babkes & Smith, 2001) 분리하지 않고 두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하지만 각각 분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예를 들어, 광미정, 문신용, 2010;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이와는 달리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 두 요인을 고려한 연구(예를 들어, 김영수, 강성구, 2002; 조아미, 2004)에서도 연구결과에 대해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의 향상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참여동기 향상방안과 활동만족도 향상방안 중 택일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 간의 관계에 따른 시사점보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여 다른 연구와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도종수(2011)와 조아미(2004) 등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행복감(생활만족도, 안녕감) 등 세 변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 참여동기와 안녕감 등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청소년의 행복감에 초점을 두고 행복감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일반적인 제언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으며(도종수, 2011), 세 변인 중에서 한 변인(참여동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조아미, 2004)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및 행복감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세 변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종속변인인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활동의 결과변인인 적응유연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존에 많이 이루어진 단편적인 효과성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활동관련 연

구들은 기술습득, 인성함양 등 긍정적인 결과(효과성)를 주로 다루어 왔다(예를 들어, 권혁, 2008; 이채식, 2005). 그러나 활동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심리적 적응유연성을 강화하고(Neill & Dias, 2001),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이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며 개인의 잠재능력이 개발되면서 행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참여동기, 활동만족도)과 긍정적인 결과로만 한정하는 연구를 지양하여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거쳐 행복감에 이르는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활동의 결과는 활동자체의 특성상 어느 한 영역의 효과로 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응유연성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리더십활동에 참여하였다더라도 리더십향상 외에 다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특정분야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적응유연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적응유연성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기존의 적응유연성 관련 연구들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청소년의 발달단계 특성상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적응유연성은 특정영역의 기술이 아닌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청소년활동이 지향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Kia-Keating, Dowdy, Morgan & Noam, 2011).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분노조절 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적응유연성이 향상되었고(윤재연, 2009), 청소년들이 문화·체험 및 정서·심성활동 등에 만족할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향상되었다(김종언,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을 통해 행복감에 이르는 적합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행복감의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제시되어 있고, 이에 추가하여 ‘행복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 또는 그런 느낌’으로 정의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2). 행복감과 관련한 연구들은 행복감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상태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삶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인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예, 윤성민, 2011; Diener, Lucas & Oishi, 2002; Proctor, Linley & Maltby, 2009; Seligman, 2002). 행복이라는 용어 속에 이미 ‘주관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Argyle(2000)와 같은 연구자들은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이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구재선, 2005: 재인용). 다만 행복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인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인 ‘주관적 안녕감’을 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삶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으로 정의되었다(권석만,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의 개념들을 모두 행복으로 간주하여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행복감’은 개개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적·인지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 그리고 효과성인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청소년활동의 전과정 즉 시작과 과정, 종료 그리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 추후활동의 참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꺼이 노력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다(김진호, 2008). 또한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는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

하는 이유이며, 청소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Carruthers & Busser, 2000; Perkins, Borden, Villarruel, Carlton-Hug & Stone, 2007). 그리고 청소년활동만족도는 청소년들의 활동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킨 결과의 정도로 정의한다(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9).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도종수(2011)는 청소년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참여한(내재적 동기)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권유나 단체로 참여한(외재적 동기) 청소년들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서는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동기(identified regulation motivation: 개인적 중요성이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동기화된 행동), 외적 조절동기(external regulation motivation: 외적결과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가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무동기와 부과된 조절동기(introjected regulation motivation: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 행동)는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아미,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동기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예, 남인수, 남경완, 김종철, 2009; 이영관, 2007).

활동만족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대해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도종수, 2011),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활동과 같은 동적 여가활동의 만족도(심리적 만족, 사회적 만족)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려정, 2010).

적응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연화(2010)의 연구에서 적응유연성과 행복감이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적응유연성의 하위 요인 중 활력성, 낙관성이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안진 등(2005)의 연구 역시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유연성은 신체상, 모애착, 또래애착 등의 요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이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적응유연성 역시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청소년활동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유연성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Neill & Dias, 2001),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고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권일남 외, 2008). 이와 관련하여 Patricia(2001), Borman과 Overman(2004), Tiet, Huizinga and Byrnes(2010)는 청소년들의 교과 외 활동이 적응유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포츠활동(강대원, 2008)과 방과 후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연숙, 2006)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적응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윤재연(2009)은 대학의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참여동기가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효율성, 분노조절 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에서 오승환(2009)은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한 흥미(동기)와 학교부적응의 관계를 언급하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동기)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최형임 외(2012)은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교내·외 동아리활동을 하는 중학생들은 모두 적응유연성(자아탄력성)이 향상된다고 하였고,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선미(2007)의 연구에서는 공동체활동(캠프 등의 집단활동), 특기지도(공부 외 다양한 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력(학교적응유연성) 간에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사회성교육·성교육·예절교육 등의 생활지도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력(학교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은설과 임영식(2011)의 연구에서는 활동의 동기가 직·간접적으로 활동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가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을수록, 무동기가 낮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아지므로 여가만족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여가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아미, 2004).

위와 같이 구체적인 청소년활동의 영역은 다르더라도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활동만족도가 올라가고,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의 결과인 적응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정되는 2개의 모형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한 평가방법 중 경쟁 모형의 제시를 통한 평가방법을 채택하였다. 경쟁모형 평가방법은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능한 여러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단일모형평가는 하나의 모형만을 모형의 적합도만으로 평가한 후에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 더 나은 대안모형의 선택가능성이 없어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서 최적의 모형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정지수를 통한 모형의 수정은 연구자가 분석하는 특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수정모형을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일모형 평가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모형을 통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09: 재인용).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이므로 여러 모형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의 변인을 통해 선행연구에서의 관계성을 근거로 하여 2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경로의 제거를 통해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청소년활동과 행복감에 관련된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구조적인 관계 혹은 하나의 모형으로 밝힌 연구가 아직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모형을 설정하였다. 2개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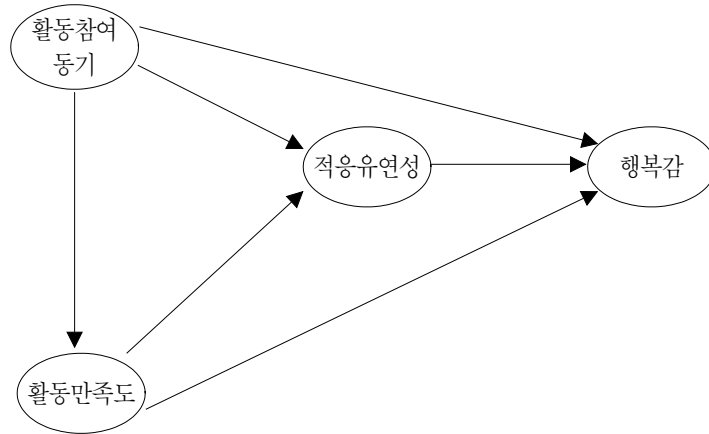


그림 1. 기본모형(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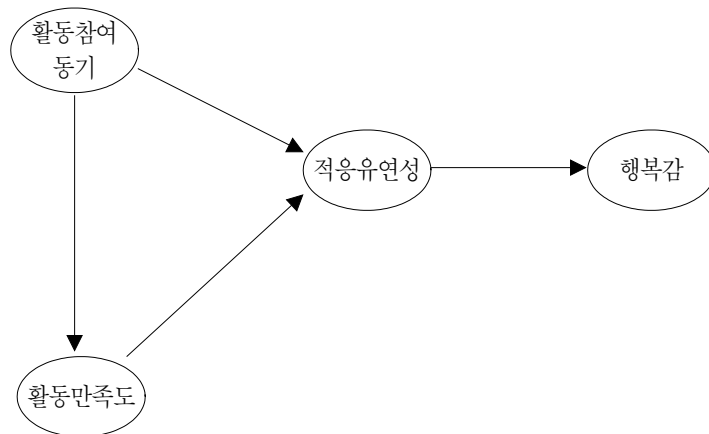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모형2)

모형1은 동기가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기와 만족도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과 적응유연성을 통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경로로 설정하였다(그림 1).

모형2는 모형1에서 활동의 참여동기 및 만족도가 행복감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거한 유형으로 참여동기가 활동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각각 적응유연성을 거쳐 행복감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림 2).

2개의 모형에 대한 설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활동의 참여동기가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청소년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정배(2011)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는 자기목적적 성격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봉우 등(2008)도 활동에서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활동의 참여동기가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만족도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역시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민경훈과 김수겸(2008)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 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활동의 만족도가 높더라도 행복감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모형2에서는 Hawkins, Catalano and Benard (1990)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적응유연성) 양성바퀴¹⁾에 근거하였는데, 6단계의 ‘의미있는 참여기회 제공하기’를 적용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연정, 2010).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학교, 청소년시설·단체·기관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의 빈도 및 정도를 넘어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참여동기가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방식과 참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Manfredo, Driver & Tarrant, 1996). 그리고 청소년들이 왜 활동에 참여했는지와 같은 활동의 참여동기가 개인의 활동만족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조아미, 2004). 따라서 모형2에서도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설정하였고, 기존연구에서 적응유연성이 청소년들의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유안진 외, 2005; 정규석, 2011)를 반영하였다.

1) 적응유연성을 양성하기 위한 6가지 전략으로, ‘1단계: 유대 증가시키기, 2단계: 분명하고 일관된 경계 설정하기, 3단계: 생활기술 가르치기, 4단계: 보살핌과 지지 제공하기, 5단계: 높은 기대를 설정하고 전달하기, 6단계: 의미있는 참여 기회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Henderson & Milstein, 2003, 장승욱 역, 2008).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청소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표본 프레임(sample frame: 모집단의 특성과 속성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표본단위들의 총집합체)을 설정하여 확률표본추출을 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참여자에 대한 전체 명단을 구할 수 없는 한계와 현실적 조사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집방법은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고, 16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형 프로그램(285부, 67%)과 숙박형 프로그램(140부, 33%)²⁾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청소년활동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기형 프로그램은 4회기 종료직후에, 숙박형 프로그램은 2박 3일 일정 종료직후에 실시하였다. 총 425부의 설문 중에서 371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7%), 코딩과정에서 전문항 동일번호로 답안을 체크하거나 미응답문항이 있는 불성실한 설문지(49부)와 극단치(outlier)를 제거³⁾

2)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정책 중 하나인 수련활동인증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구분 형태이다. 정기형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1회 3시간 이상으로,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숙박형 프로그램은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활동장에서 1일 이상 숙박을 하며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정기형 프로그램인 경우, 1회 2시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기형 프로그램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집에 있어서는 정기형과 숙박형의 비율을 유사하게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기형과 숙박형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인증수련활동의 경우 85%:15%의 비율을 보임. 임영식·문성호·정경은, 2011). 이러한 상황이 표집과정에 반영되었다.

3)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단변인별 극단치(univariate outlier)를 확인하여 제거하였다. 단변인별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 SPSS 17.0을 활용하여 측정값의 원점수를 Z점수로 변환한 뒤에 빈도분포로 Z점수가 -3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값을 제거하였다. 2단계는 다변인 극단치를

(14부)하여 최종 30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활동참여동기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유지하려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의 측정도구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와 현장 청소년지도사 3명, 중·고등학생 193명과 학부모 13명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제작하였다. 그 다음으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이 문항들은 청소년분야 교수 1인, 박사수료생 및 과정생 총 5명으로부터 설문 문항에 대한 안면타당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대상청소년들이 설문문항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을 기초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용어나 문장에 대한 수정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12개 문항의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2로 나타났다.

2) 청소년활동만족도

청소년활동만족도는 청소년활동의 참여에 따른 결과로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느끼게 되는 욕구와 기대의 충족 정도로 의미한다. 청소년활동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임영식, 이찬욱, 이산호, 문성호와 정경은(2009)이 개발한 척도를 본 조사에 맞게 수

확인하는 것인데, 두 개나 그 이상의 변인에서 극단치를 갖거나 점수의 형태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통계치(Mahalanobis Distance statistics)를 활용하였는데(문수백, 2009), 본 연구에서는 AMOS 18.0 프로그램에서의 정규성과 극단치 검증을 지정하여 Mahalanobis D^2 의 값을 산출하고,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하여 다변인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4) 문항에 대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된 척도의 교차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다른 사람에게 청소년활동을 추천하겠다’ 등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3)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적 요구에 적절하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소영과 이양희(2011)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적응유연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자기와 타인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등 4개의 하위요인에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알맞은 때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개발한 청소년용 탄력성(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 RSA)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하위영역별로 변별력이 좋지 않은 4개 문항(29번, 19번, 15번, 24번)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3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4) 행복감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행복감은 개개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심리적·인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이 개발한 주관적 행복(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척도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인생을 즐기며 모든 것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낸다’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본 조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변별력이 좋지 않은 1개 문항(4번)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AMOS 18.0을 사용하여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모형을 찾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치(χ^2), GFI(기초부합치)를 살펴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면서도 명확한 해석기준을 가진 NNFI(TLI: 비표준부합치)와 RMSEA(근사치오차 평균제곱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면서도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비교부합치)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이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모형이 경험적으로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경쟁모형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총 2개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χ^2 차이검증(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 PGFI(Parsimony Goodness-of-Fit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여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분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모형을 선정한 뒤에 최종모형의 잠재변인들 간에 경로의 의의도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추정치와 t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로계수의 의의도와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고, 표준화경로계수를 통해 요인 간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활용된 측정변인 간에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측정변인들 간에 상관계수가 .12에서 .72의 분포로 모든 변인들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종속변인인 행복감 역시 다른 변인들과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다($p < .01$, $p < .05$). 한편 자기수용과 자기 및

타인이해 간의 상관계수가 .70이상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는데 VIF(변량증폭요인)의 값(기준 10이상)이 1.23에서 3.02 사이의 값을 보이고, 공차한계 또한 모두 .10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행복감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경험과 즐거움	1								
2. 타인인정	.22**	1							
3. 여가활용	.44**	.33**	1						
4. 활동만족도	.56**	.14*	.22**	1					
5. 자기수용	.61**	.18**	.29**	.50**	1				
6. 자기 및 타인 신뢰	.67**	.12*	.28**	.59**	.72**	1			
7. 부정적 감정의 안내	.42**	.26**	.22**	.34**	.61**	.53**	1		
8. 적극성	.52**	.29**	.29**	.43**	.62**	.59**	.50**	1	
9. 행복감	.43**	.05	.12*	.42**	.55**	.57**	.41**	.40**	1

* $p < .05$, ** $p < .01$

2. 연구모형검증

1) 모형1

모형1은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이 매개하는 모형이다. 참여동기가 활동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행복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과 적응유연성을 통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모형1의 적합도 검증결과, 표 2와 같이 χ^2 지수는 81.749($p < .000$), RMSEA=.091, GFI=.938, NNFI(TLI)=.920, CFI=.949로 나타났으며, 표본수에 민감한 χ^2 지수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좋은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RMSEA는 .091이지만 .1보다는 작아서 보통정도의 수준을 보였고(Browene & Cudeck, 1993),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용할 만

한 적합도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형1의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통해 경로들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beta=.66$), 참여동기와 적응유연성($\beta=.58$), 활동만족도와 적응유연성($\beta=.31$), 적응유연성과 행복감($\beta=.77$)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참여동기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beta=-.18$)와 활동만족도에서 행복감으로 가는 경로($\beta=.09$)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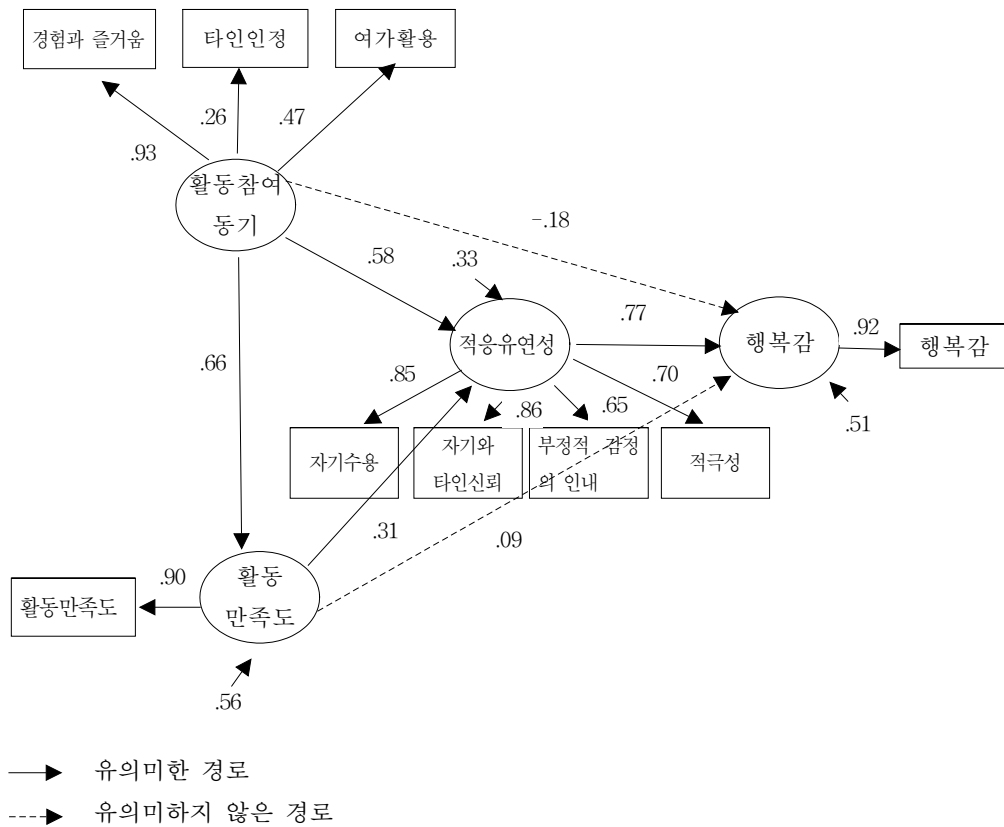


그림 3. 모형1의 검증결과

2) 모형2

모형2는 모형1에서 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가 행복감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거한 유형으로 참여동기가 활동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각각 적응유연성을 거쳐 행복감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모형으로 가정하였다.

모형2의 적합도 검증결과, 표 2와 같이 χ^2 지수는 84.925($p < .000$), RMSEA=.088, GFI=.936, NNFI(TLI)=.926, CFI=.948로 나타났으며, 표본수에 민감한 χ^2 지수를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좋은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RMSEA는 .088이지만 .1보다는 작아서 보통정도의 수준을 보였고(Browne & Cudeck, 1993),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판단되었다.

또한 모형2의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통해 경로들이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beta = .66$), 참여동기와 적응유연성($\beta = .55$), 활동만족도와 적응유연성($\beta = .34$), 적응유연성과 행복감($\beta = .68$) 간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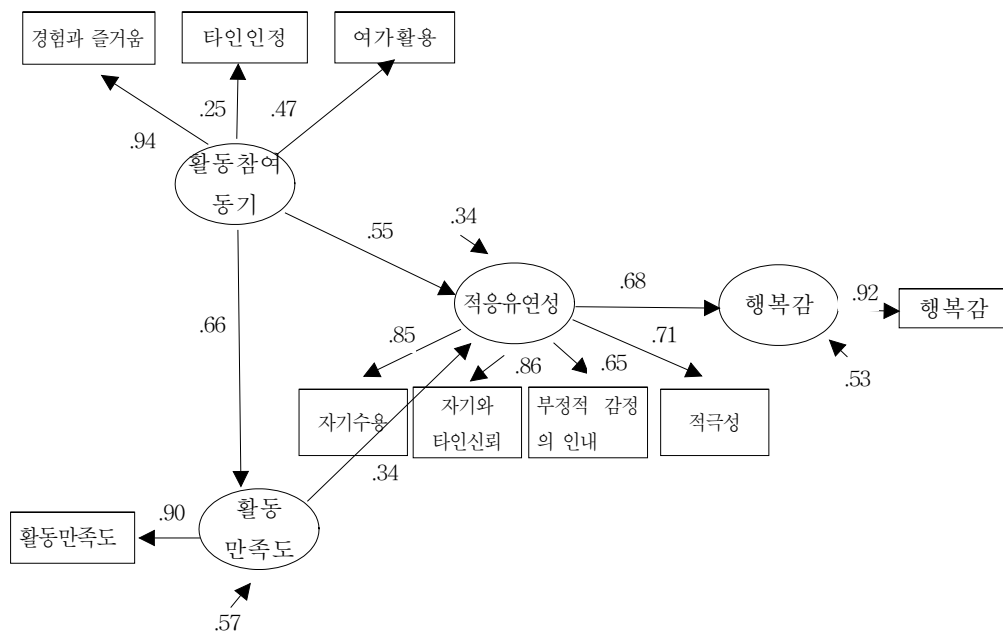


그림 4. 모형2의 검증결과

표 2

모형1, 2의 적합도

	χ^2	df	p	RMSEA	GFI	NNFI(TLI)	CFI	PGFI	AIC
모형1	81.749	23	.000	.091	.938	.920	.949	.479	125.455
모형2	84.925	25	.000	.088	.936	.926	.948	.520	124.925

3. 모형간 비교분석

위에서 제시한 적합도(표 2)에 χ^2 차이검증(SCDT: 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를 추가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3

 χ^2 차이검증

구 분	모형1	모형2	차이 ($\Delta\chi^2$, Δdf)
χ^2	81.749	84.925	3.176
df	23	25	2
p	.000	.000	>.05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모형1과 모형2는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가 유사한 수준이며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지수는 RMSEA와 AIC로 두 지수 모두 작은 값일수록 좋은 모형임을 감안할 때, 모형1보다 모형2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PGFI 역시 모형2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χ^2 값의 차이를 보면 3.176 만큼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즉 여기에서는 모형2가 우수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적합도 지수 및 χ^2 차이검증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합도인 경우 두 모형 모두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용할 만한 값을 보이지만 RMSEA, AIC, PGFI 값은 모형2가 좀 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χ^2 값의 차이인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형2가 모형1의 간명모형으로 자유도가 모형1에 비해 2만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모형2를 모형1에 비해 타당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4. 최종모형분석: 직접 및 간접효과

우선 간접효과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참여동기(독립변인), 활동만족도(매개변인), 적응유연성(종속변인) 간의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참여동기)은 매개변인인 활동만족도 총 변량의 43%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66$). 독립변인(참여동기)과 매개변인(활동만족도)은 종속변인(적응유연성) 총 변량의 66%를 설명하였으며, 참여동기($\beta=.77$), 활동만족도($\beta=.34$) 순으로 각각 적응유연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참여동기, 활동만족도(독립변인), 적응유연성(매개변인), 행복감(종속변인) 간의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인(참여동기, 활동만족도)은 매개변인인 적응유연성 총 변량의 66%를 설명하였으며, 참여동기($\beta=.77$), 활동만족도($\beta=.34$)가 각각 적응유연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독립변인(참여동기, 활동만족도)과 매개변인(적응유연성)은 종속변인(행복감) 총 변량의 4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적응유연성($\beta=.68$), 참여동기($\beta=.53$), 활동만족도($\beta=.23$) 순으로 각각 행복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동기는 활동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적응유연성에 유의하게 간접적인 영향($\beta=.22$)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동기가 높다면 활동만족도를 높리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적응유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적응유연성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유의하게 간접적인 영향($\beta=.53$, $\beta=.23$)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높다면 적응유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복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전체설명량
참여동기 → 활동만족도	.66***	-	.66***	.43
활동만족도 → 적응유연성	.34***	-	.34***	
참여동기 → 적응유연성	.55***	.22*	.77*	.66
참여동기 → 행복감	-	.53*	.53*	
활동만족도 → 행복감	-	.23*	.23*	.47
적응유연성 → 행복감	.68***	-	.68***	

* $p < .05$,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에 따른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행복감에 미치는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을 거쳐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타당한 모형은 모형2로,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를 외생변인으로 하고,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행복감을 내생변인으로 하였다. 모형2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적응유연성에 대한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활동의 동기가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가 청소년들의 발달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Hansen과 Larson(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Ryan과 Deci(2000)와 Csikszentmihalyi(1990) 역시 청소년활동을 할 때,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의 목표에 의해 동기화된 청소년들이 활동의 결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발달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의 참여동기가 높은 청소년들이 적응유연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한 윤재연(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김진호(2008)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활동에 대한 몰입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활동의 결과에 있어서도 적응유연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학, 스포츠, 여가문화 등의 분야에서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참여청소년들의 동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활동의 만족도와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활동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함께 다루기보다는 각각 분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만족도와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효과성)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활동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적응유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유연성(효과성)의 예측변인으로

활동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활동만족도가 참여동기와 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유연성을 예측함에 있어서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동안의 활동만족도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의 단선적인 연구를 넘어 활동만족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적응유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복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직접적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응유연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과정에서 적응유연성을 높여서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적응유연성을 제시한 김노은(2011)의 연구와, 적응유연성이 높아질수록 안녕감의 수준도 향상된다고 보고한 정규석(201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적응유연성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적 요구에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 전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도 행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활동관련 연구들과는 달리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성 변인으로 적응유연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함의 및 제한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따른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모델을 제안하였고,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활동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발전을 시도하였다. 그 동안 청소년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져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청소년활동관련 변수로 주로 효과성변인들을 많이 사용해왔고,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효과성 변인을

지양하고 활동의 효과성을 넘어 오늘날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행복감’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활동에 따른 기술습득 등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특히 정서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행복감은 추후의 활동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참여로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자살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결과 행복감이 선정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적응유연성을 거쳐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활동의 현장에서도 행복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해서 적응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청소년활동 연구영역의 새로운 주제로서 행복감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 행복감 등의 긍정적 개념을 주요 변인으로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안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문제의 주체가 아닌 사회의 문화적·경제적 자원으로써 성인과 함께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 등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등의 최근 연구경향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연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감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청소년 스스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시각이 반영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활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활동의 결과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술습득 및 인성함양 등을 제공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과 관련된 것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원하고 느끼는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술습득 수준이 높고 인성함양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복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청소년 개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활동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으로 요구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과 같은 요인도 결과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요구를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및 관련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는 활동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연구 분야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청소년활동 참여동기의 척도는 그 동안 척도부재로 인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동기유형에 따른 활동의 참여정도나 효과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 개발된 척도는 좀 더 면밀하고 철저한 타당도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현장에서도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가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동기와 활동만족도는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복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변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동기에 있어서는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낮은 동기에 속한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지도가 필요하며, 동기를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지도자를 비롯한 주위환경의 협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활동만족도조사 역시 기존에 활동종료 직후에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무성의하게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만족도 조사도 활동시간 안에 포함하여 신중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양질의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활동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과 결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그 동안 청소년활동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활동 참여의 정도(여부, 빈도, 시간 등)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동만족도가 청소년활동의 적응유연성(긍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의 참여 자체뿐만 아니라 활동의 참여동기 및 활

동만족도가 활동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영역의 연구자들은 활동의 참여정도 외에도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으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활동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로 축적되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정책의 수립에도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 현장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비확률표집(할당표집)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가정하거나 표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는 활동에 한정하여 대상을 표집을 하였다는 점과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비교적 동기가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단체 및 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연구와 위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낮은 동기를 지닌 집단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활동의 과정변인을 검증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다회기(4회기 이상) 참여자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있어서도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의 변화(maturation effect: 성숙효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연구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history effect: 특정사건의 영향)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적응유연성과 행복감은 지극히 주관적인 항목으로, 단시간 혹은 몇 회기 정도만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쉽게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4회기 종료직후에 설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치밀한 연구설계를 통해 행복감의 변화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태원 (2008).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체력과 신체적 자기개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곽미정, 문신용 (2010). 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봉사활동의 동기, 진로성숙도, 학업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8(2), 111-141.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2).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에서 2012년 6월 21일 인출.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일남, 정철상, 김진호, 김영철 (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제2판). 서울: 학지사.
- 권혁 (2008). **청소년활동 참여가 자아정체성 확립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노은 (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
- 김선미 (2007).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수, 강성구 (2002). 청소년 특기·적성교육의 참여동기와 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1), 20-28.
- 김윤나, 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은정 (2009).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종언 (2008). **교육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호 (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25.
- 남인수, 남경완, 김종철 (2009). 남자대학생의 여가참여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27-38.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경훈, 김수겸 (2008). 직업군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 및 심리적 행복감의 인과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4), 21-32.
- 박정배 (2011).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화, 배영직 (2004). 청소년지도자의 리더십유형과 청소년단체 활동 효과의 관계. **교육평가논집**, 21, 103-134.
- 심은실, 김영혜 (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4(4), 97-119.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연세대학교.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영향요인: 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유안진, 이점숙, 김정민 (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성민 (2011). **행복증진 긍정심리개입활동들의 효과: 개인-초점적 활동과 관계-초점적 활동의 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재연 (2009). **대학 농구동아리 참가자의 운동참여동기,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려정 (2010).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생활만족 간 영향관계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155-178.
-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 이승희 (2010). 방과후 체육활동 참가 중학생의 참가동기와 스포츠태도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9(6), 103-113.
- 이연숙 (2006). 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프로그램 참여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511-528.
- 이영관 (2007). 여가동기와 여가활동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9(4), 343-359.
- 이채식 (2005). **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09). **2009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2011). **2011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임영식, 이찬욱, 이산호, 문성호, 정경은 (2009).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 및 아카데미 CETA 연수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장봉우, 이승우, 김진배, 이현희, 오성준, 윤병인 외 (2008). 동계레저스포츠 참가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2), 215-231.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정규석 (2011).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0, 103-121.
- 정미경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6(1), 271-290.
- 정연정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연구: 사회적 낙인인식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준교 (2005).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아르바이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가생활

- 만족도, 삶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17-541.
- 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 조아미 (2004). 청소년의 여가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333-353.
- 진은설, 임영식 (2011).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 집단의 특성 그리고 활동만족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3(3), 281-303.
- 최원기 (2004). 청소년 자살의 사회구조적 원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18(4), 5-30.
- 최인재, 김지경, 임희진, 강현철, 이한나 (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 현정혁, 홍준희, 이현영 (2010).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및 행복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9(6), 161-171.
- Borman, G. D., & Overman, L. T. (2004). Academic resilience in mathematics among poor and minority stud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4(3), 177-19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ustad, R. J., Babkes, M. L., & Smith, A. L. (2001). Youth in sport: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R. N. Singer, H. A. Hausenblas, & C. M. Janelle (Eds.), *Handbook of sports psychology* (pp. 604-635), (2nd ed.). NY: John Wiley.
- Carruthers, C. P., & Busser, J. A. (2000). A qualitative outcome study of boys and girls club program leaders, club members, and parent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8(1), 50-67.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 NY: Harper & Row.
- Diener, E., Lucas, R. E., & Os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3-73). Oxford University Press.
- Hansen, D. M., & Larson, R. W. (2007). Amplifiers of developmental and negative experiences in organized activities: Dosage, motivation, lead roles, and adult-youth ratio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360-374.
- Henderson, N., & Milstein, M. M.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장승옥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3 출판)
- Kia-Keating, M., Dowdy, E., Morgan, M. L., & Noam, G. G. (2011). Protecting and promoting: An integrative conceptual model for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4), 220-228.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Manfredo, M. J., Driver, B. L., & Tarrant, M. J. (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188-213.
- Neill, J. T., & Dias, K. L. (2001). Adventure education and resilience: The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venture Education and Outdoor Learning, 1*(2), 35-42.
- Patricia, L. S. (2001). *Resiliency and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among Latino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and San Diego State University, Claremont.
- Perkins, D. F., Borden, L. M., Villarruel, F. A., Carlton-Hug, A., Stone, M. R. (2007). Participation in youth programs: Why ethnic urban youth choose to participate—or not to participate. *Youth & Society, 38*, 420-442.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Y: Free Press.
- Tiet, Q. Q., Huizinga, D., & Byrnes, H. F. (2010). Predictors of resilience among inner city youth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3), 360-378.

ABSTRACT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of youth activities, resilience, and happiness

Jin, Eunseol*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propose the most appropriate model by which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ctivity satisfaction, happiness and resilience may be verified. A survey, target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 in youth activities at youth centers was used to obtain the main data.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308 young peop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AMOS 18.0, was conducted to elucidate an appropriate model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ctivity satisfaction, resilience and happiness.

The study respectively verified two models, and attempted to explain happiness led by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ctivity satisfaction through the empirical data, and suggests Model II as the most appropriate model. Specifically looking into the channel between the variables, the study found that participation motivation for activities had a static effect on activity satisfaction and resilience, and that activity satisfaction had the same effect on resilience. In addition, resilience turned out to affect happiness. Meanwhile, activity satisfaction showed an indirect effect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resilience. Resilience showed an indirect effect between happiness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ctivity satisfaction.

* Chung-Ang University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provide a number of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examined here.

Key Words :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activity satisfaction,
resilience, happiness

투고일 : 12월 10일, 심사일 :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1월 21일

